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달리고 달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慶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趙大濟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대진O/T 411호
TEL: (051)245-7551~3, FAX: 245-7550
홈페이지: www.kyungnam.or.kr
인쇄처: 釜山日報社
在韓總發售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복빌딩 504호
T: (02)783-0071~2 F: (02)783-0073

‘용마의 밤’ 축제 12월 15일 롯데호텔서

감동의 재회
뜨거운 악수

“모두 모여 ‘영광의 내일’ 준비하자”
본부 2차 이사회서 계획안 최종 확정

용마가족의 화합과 결속을 확인
하는 새 천년 첫 ‘용마의 밤’ 축제
가 오는 12월 15일 오후 6시 30분
부산진구 ‘호텔롯데부산’ 3층 대연

회실에서 열린다.
본부동창회는 11월 8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조대제회장(7회·협성

개발 대표이사) 주재로 올해 제2차
이사회를 열고 ‘2000년 용마의 밤’
축제 계획안과 제32회 기별야구대
회 결산보고 등 주요의제를 통과시
켰다(사회 최득호사무국장·11회).
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처음 도입된 용마산행대회 골프대
회 기별야구대회 등 동창회의 각종
행사가 이사 여러분의 성원에 힘

입어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다”며
“동창회 최대 이벤트로 자리잡은
용마의 밤 행사가 대성황을 이룰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00 용마의 밤’ 축제는 1부 기
념식에서 지난 10월 28일 폐막된 제
32회 기별야구대회 우승팀인 제33
회와 준우승팀인 제38회에 우승기

및 준우승컵을 수여한다.
행사 2부에서는 유명 실내악단과
MC 및 가수를 초청해 버라이어티
쇼를 펼치고 김상국(6회) 남광수동
문(11회) 등 현역 가수동문의 열창
과 기별 대표가수의 장기 및 노래
자랑 등을 벌인다. 또 다수 참석 동
기회 1, 2, 3 등을 뽑고 행운상도
추천한다.



제32회 기별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제33회동기회 동문·가족들이 조대제회장(앞줄 가운데)으로부터 우승기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3회 감격의 첫패권

동창회장배 제32회 기별대항 야구대회 성료

제33회동기회가 기별야구대회에서
처음으로 패권을 쥘, 영광과 감격
을 함께 누렸다.
제33회는 10월 28일(토) 오후 경
남고야구장에서 폐막된 동창회장배
쟁탈 제32회 기별대항야구대회
(2000 부산시리즈) 결승전에서 막
강한 제38회를 연장8회 2점 굳히기

준우승 제38회
MVP: 손영대(33회) 차지
최대참가상: 제32회

는 등 시종 혈전을 벌였다.
제33회는 제38회의 1회말 공격에
서부터 무차별 집중포격을 맞아 기가
죽었다. 3회말 무려 6점을 내줘 2-
11로 낙심. 그러나 4회초 김석일의
2점 홈런을 신호로 반격에 나서 5점
을 귀하게 뽑은 뒤 5회 대거 7점을
보태 14-17까지 따라 붙었다. 이어
7회에서 4점을 보태 동점을 이뤘다.
제38회는 4, 5회에서 각 3점씩을
추가하고 7회 1점을 더 보태 연장전
에 들어갔다.

로 21(핸디 2점 포함)-19 승리, 대
망의 황금용마기를 품에 안았다.
MVP는 손영대동문(33회)이 뽑혔
다.
이날 결승전은 상호 소나기 안타를
교환하고 한 차례의 역전극을 연출하

이후 연장전에 들어간 제33회는 8
회초 3점을 뽑아 이를 잘 지키므로
써 제38회의 반격을 겨우 1점에 그
치게 하고 패권을 쥘수 있었다.

조대제 본부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박진감 넘치는 한판승부를 연출한
제33회와 제38회의 파인플레이어를 치
하한다”며 “기별야구대회가 신명 넘
치는 축제가 되기를 용마가족 모두가
변함없이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 ▲단체상
▷우승: 제33회
▷준우승: 제38회
▷최대참가상: 제32회
- ▲개인상
▷최우수선수상: 손영대(33회)
▷최우수투수상: 황규태(33회)
▷감독상: 김법영(33회)
▷수훈상: 김운철(38회)
▷타격상: 1위 김교철(22회·11타수 9안타)·2위 하태욱(44회·12타수 9안타)·3위 차정호(38회·21타수 13안타)
▷감투상: 이윤조(33회)·제태훈(38회)
▷미기상: 공진우(33회)·김원철(38회)
▷인기상: 백수현(33회)·노재완(38회)
▷인기가족상: 윤상현(33회)
▷공로상: 전광열(44회)
▷홈런상: 손영대(33회)·오기욱(37회)·김운철(38회)·정순환(39회)·김득수(41회)·이영환(42회)·김병제(42회)·안병규(44회).

제20회 ‘우승샷’...그린 천하통일

서울 김영목(23회) 개인전 왕좌·유재진(22회) 72타 메달리스트 수상

제3회 용마골프대회

지난 10월 30일 성료된 본부동창회
주최 용마골프대회에서 제20회가
‘우승샷’을 날려 제1회 대회에 이어
통산2연패를 달성, 그린 ‘천하통일’
의 위업을 세웠다.

또 개인전은 서울에서 참가한 김영
목동문(23회·-1)이 우승했고 식전
번외경기로 치러진 장타대회에서는
김종호동문(31회)이 275m를 날려
타이거 우드상을 받았다.

이날 오전 9시 동래 베네스트골프
클럽에서 열린 본부동창회장배 제3
회 용마골프대회에는 30회기 선수
185명과 응원 동문 등 300여명이 참
석, 대성황을 이뤘다.

올해 대회도 1회때부터 기획·준비
에 열성을 쏟은 옥윤석집행위원장(16
회)이 치밀한 계획과 섭외 등 노고를
아끼지 않아 성황을 이루게 했다.

조대제본부회장의 시구에 이어 인·
아웃 각 24개조로 나뉜 출발한 이날
대회에서 단체전 경우 제20회가 233
타를 기록, 98년 첫 대회에 이어 우
승했다. 제22회와 제27회는 각 234
타 236타로 준우승과 3위를 했다.

개인전에서는 김영목동문이 왕좌
에, 미국행 비행기 예약을 바꾸면서
까지 출전한 유재진동문(22회·본부



10월 30일 동래 베네스트 G.C.에서 열린 제3회 기별대항 용마골프대회 동기회 대표 기념촬영. 이날 대회에는 선수 185명과 응원 동문 등 300여명이 참석,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부회장)이 72타(이븐)로 메달리스트
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이번대회는 서울과 부산에서
한자리수 회기 선배들이 많이 참가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시니어부에서
는 서울의 김영기동문(8회)이 핸디
+1로 우승을 차지했고 배주원동문
(8회)이 76타로 메달리스트에 올라
후배동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또 정행권 용마회장(9회·본부부회
장)은 아웃코스 3번홀에서 핀 1.4m
에 공을 붙여, 니어핀을 차지하는 감
격을 누렸다.

한편 우정과 격려가 활짝 핀 라운
딩을 마친 후 시상식을 가졌고 행운
권 추첨 등이 있었다.

조대제본부회장은 옥윤석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폐회사를
통해 “용마골프대회는 동문들 상호
간 우의증진은 물론 대동단결을 촉진
하는 한마당”이라며 “이 대회가 동
창회 발전의 활력소로 기여할 수 있
게끔 성원을 아끼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 김성규 재경회장(11회)의 구
호 격려사와 서울에서 참가한 배주원
동문의 축사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송규정본부부회장(16회·로얄킹덤호
텔 대표)이 협찬한 행운권 ‘로얄킹덤
호텔 숙박권’ 10장 추첨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 폭소를 연발시켰다.

- 개인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우승=김영목(23회)
▷메달리스트=유재진(22회)
▷준우승=김정직(16회)
▷3위=임우택(17회)
▷4위=현희수(20회)
▷5위=양성민(16회)
▷롱이스트=김경남(24회)
▷니어핀=정행권(9회).



慶南中·高等學校 同窓會

재경동창회 이규만 재경동창회 신임회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금성사에 입사, 8년간 경영실무를 거쳐 정몽출신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난 81년 2월 (주)KML을 설립,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재경동창회 신임회장에 이규만 (12회) 정기총회 성황...임원임기 1년

개정회칙안 통과

재경동창회 2000년 정기총회(사진)가 10월22일(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역도경기장)에서 열려 제14대 회장에 이규만회장(12회·KML 대표이사)을 선출했다. 김성규회장(11회·전 국제상사 대표이사)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박양조 사무국장(19회)의 사회로 진행돼 결산보고와 예산안 회칙개정안 등 주요의제를 승인했다.

특히 개정회칙은 △현실 불부합 조항을 고치고 △회장 노령화 방지를 위해 '임원 임기 2년'을 '임원 임기 1년'으로 수정됐다.

'회장 임기 1년'안은 지난 9월28일 대방동 '삼보루'에서 열린 올해 2차 이사회에서 김성규회장이 발의, 뜨거운 찬반토론 끝에 의결한 것으로, 이날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신임회장의 임기는 200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김성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젊

어지는 동창회를 위해 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시킨 것은 바람직한 의결"이라며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더욱 결집하고 조직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윤승홍 기별야구회장(14회)이 제32회 기별야구대회 입상자를 시상했다.

총회는 2부에서 장기자랑을 벌여 제34회가 대상을 뒀고, 많은 동문들이 행운상 추첨에서 고가의 경품을 타 각 부인으로부터 귀염(?)을 받았다.

"40년간 시카고에서 살아도 고향땅 그리움 자나깨나..."

김진환동문(8회) 부인 손숙자씨 사연 보내와

다음 글은 미국 시카고에서 40년간 살고있는 김진환동문(8회)의 부인 손숙자씨(손석훈동문 누이·이화여대 불문학과 졸업)가 고국에서 보내주는 '재경 경팔통신'을 즐겨 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누지 못해 안부말과 시 한편으로 대신한 것으로 '재경 경팔통신 2000-10'에 게재한 것을 옮겨 실었다. 손여사의 둘째 아들은 이민 한국1세의 생활을 그린 단편 '양반'으로 미국문단에 데뷔(윌리엄스 포크스재단 문학상 수상), 주목을 받고 있다. 편집자.

전영배 회장님께,
매번 남편 김진환씨 앞으로 보내주시는 경팔통신은 그의 아내인 제가 더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2000-7 서두에 있는 인생 정리에 대한 삶의 충고 시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우리도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고등학교 동기생이 이곳 시카고를 방문하시면 찾아주셔서 반가운 해후에 남편은 무척 기뻐하십니다. 정들면 고향이라고들 하지만 이곳 시카고에 40년을 살아도 대륙의 웅장한 풍경보다 웅기총기 둘러싼 산들 사이로 물이 흐르는 고향땅의 정취는 마냥 그리움으로 굳어 있습니다.

산악회 골프회 바둑회 등등의 고등학교 짝꿍들과의 매달 만남에 동참 못하고 사는 우리 영감님이 참 안되었나 싶군요.

남편을 바라보니 시 한수가 떠올라 적어봅니다.

老夫婦

은발이 온 머리를 뒤덮도록
같이 살아온 세월은
서로의 모서리를 다듬고 같이
기쁨 슬픔 희망 절망 모두 조용히
잠재우고 깨어난 새 날입니다
서로의 눈빛 몸짓 표정 하나로
이심전심되고
나르듯 걷는 발자국 소리에도
당신 오심을 직감케 합니다
산책길에 잡은 손이 꼭 내 살만 같이
찢었을 적 그 열정보다
훨씬 편안해서
영원을 향해 같이 걸을 것 같습니다

전회장님의 수고로 멀리서 향수를 달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000. 8. 손숙자 드림



제8회동기회 동문들이 경북 오어사에서 आय회를 마치고 포즈를 취했다.

제8회 आय회 포항 오어사 등 관광

제8회동기회는 지난 10월 20일 부동반 가을아유회를 경북 포항근교 오어사와 영일만의 등대박물관 등에서 가졌다. 이번 आय회에는 김정곤 회장을 비롯, 동문 25명과 부인 11명 등 모두 36명이 참가했다. 김회장은 차중 인사말을 통해 "우

리 나이에 자주 만나 즐겁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산에 가물거울 해가 지면 자넨들 지고 갈래, 안고 갈래 라는 옛 명인 한 귀절을 읊었다. 일행은 오어사 절골 솔밭에서 점심을 먹고 등대박물관을 돌아 김포의 '큰바위 횃집'에서 생선회파티를 벌였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차 칸에서는 이춘기동문이 사회를 맡아 민담과 노래자랑을 벌여 마음을 활짝 열었다.

지리산 반야봉 정복

본부 용마산악회 각 동기회 회장단 산행

본부동창회의 용마산악회 주관 산악회 회장단 및 각 동기회 산악회 회장단 참가 지리산 반야봉 도전 산행대회가 11월 11~12일 1박2일 일정으로 개최됐다.

현동대 용마산악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산악회 회장단과 각 동기회 회장단, 용마산악회원 중 희망자 등 5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일행은 11일 오후 6시30분 뽕사골 달궁마을에서 1박한 후 뒷날 아침 5

시30분 기상, 등정에 나섰다. A, B조로 나뉜 산행대는 오전 6시 50분 민박집을 나선 후 성삼재~노고단~임길령 쉼터~노루목~반야봉~삼도봉(11시50분 도착)까지 올라와 점심을 먹었다.

오후 1시 삼도봉을 출발한 일행은 불무장 등 갈림길~1348봉~988봉~직전마을(피아골)에 오후 4시30분 도착했고 바로 경남 하동읍내에서 목욕과 저녁식사를 한 후 귀가길에 올랐다.

"각 그룹 활성화 동기회 발전 견인차"

15회 부회장단 간담회

제15회동기회는 9월 29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동광동 '화국반점'에서 산우회 등 각 그룹 회장으로 구성된 부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정창환 회장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모임을 주재하고 인사말을 통해 "평소 동기회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각 그룹 회장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며 "동기회의 조직강화를 위해 변함없이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동기회의 조직 강화와 각 그룹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폭 넓게 논의했다.

사하회 월례회 열려

사하회(회장 김창구)는 9월 26일 부산 사하구 괴정동 동백길비지에서 정기모임. 이날 행사에는 17명의 동문이 참석,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며 깊어가는 초가를 저녁 한때를 즐겼다. 특히 손부 흥동문이 특별히 준비해 온 양주와 특찬금으로 노래방에서 뒤풀이 가짐.

우승 김창구·준우승 이종명

일모회(회장 신홍규)는 8월 27일 통도CC에서 14명의 동문과 3명의 부인이 참석한 가운데 8월 대회를 펼쳤다. 우승 김창구·준우승 이종명·메달리스트 신홍규·3위 박찬식·니달리스트 이종희·롱이스트 김승일·행운상 정창환동문.

일오산우회 장산 등반

일오산우회(회장 장종호)는 9월 17일 동문 26명과 부인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해운대 장산에서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일행은 손대근 산행대장이 리드한 산행을 마친 후 영양닭과 닭죽에 소주를 헌진하며 피로를 풀었다.

특히 박찬호동문은 모친상에 많은 동기생들이 조문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며 금일봉을 전달했고, 정창환동기회장은 해운대 전철우고항생면집에서 저녁을 대접했다.

자꾸 자꾸 듣고 싶은 당신의 이야기

회보편집위원회에서는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학창시절 추억이나 잠시 잊고 지낸 여러분의 꿈... 지금 일상의 이야기까지 어떤 소재도 가능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4~5장 이내(명함판 사진 1장 동봉)

<보낼 곳>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오피스텔 411호(600-074)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전화 : 051)245-7551~3 팩스 : 051)245-7550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클릭!! 클릭!!

www.kyungnam.or.kr

모교와 동창회의 소식이 가득한 동창회 홈페이지를 지금 클릭하세요.

* 홈페이지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제8회 송년회 12월 8일 확정

제8회 재경동기회는 올 송년잔치를 12월 8일 오후 6시 지하철 서초역 건너편(4번창구 앞)에 있는 '로얄부페'에서 부부동반으로 개최한다.

집행부는 지난 10월10일 오후 6시30분 '천년부페'에서 10월 월례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전영배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24명이 참석했고, 일행은 박지병동문이 최근 펴낸 '현대인의 삶과 직업윤리' 출간을 축하했다.

11월 4일 월례대국 개최

바둑동문 모임인 팔선회(회장 이유향) 11월 월례회가 11월 4일 오후 1시30분 '일품기원'에서 열렸다.

한편 10월 모임은 10월 7일 오후 1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손대근 신현주 이유한 추정화 김덕겸 김진석 이창근 전영배 강상태 동문(도축순)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승 손세일 동문·최옥자씨

골프동문 모임인 잔디회(회장 이창근)는 11월 2일 오전 9시 안성CC에서 6개팀(21명)참가의 제95회 월례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제94회 월례회가 10월 5일 같은 장소에서 열려 남자부에서 우승 손세일(95타 6언더)·준우승 홍기성·3등 김영길·행운상 윤태영동문이, 여자부에서 우승 최옥자(97타 5언더)·준우승 문경희·행운상 장은아씨가 각각 차지했다.

왕성한 활동 1-4반창회

11월 24~27일 일본여행

재경 동기회 중 반창회 활동이 가장 왕성한 경팔회(재경8회) '1-4반창회'가 오는 11월 24~27일 3박4일 일정으로 부부동반 일본 홋카이도여행을 추진하고 있다.

경팔회 '1-4반창회'는 이번 행사의 성황을 위해 명예반원을 영입하기로 하고 최재혁(031-703-7629)·이영창동문(02-737-8214)에게 준비를 맡겼다. 1-4반창회는 매월 28일(공휴일이면 앞당기거나顺延) '홍진옥'에서 월례회를 갖는다.

지난 96년 9월 출범한 1-4반창회는 월례회 이외 국내외 행사로 △98년 3월 26~28일 일본 벳부로 입학 50주년 기념 여행(배주원동문 부부 명예반원 영입) △99년 10월 15일 태안반도~내포지역 관광(박기홍동문 부부 명예반원 영입) △올해 5월 26~27일 한려수도 관광여행(노재복동문 부부 명예 반원 영입)등을 실시했다.

경팔회 1-4반창회 결성 내력은 다음과 같다.

96년 9월 동문 혼사 뒤풀이 점심모임에서 접담 중 한 친구가 "니, 중학교 1학년때 한문 선생반 맞제. 서울에 한문선생반 아이들 몇 명이나 되겠노?" 이렇게 서로의 기억을 빌어 더듬어 모으니 19명, 같은 해 10월 하순 첫 모임을 열었다.

"니, 영어시간에 몰래 소설 읽다가 선생한테 들키고한 현대 안 맞았나. 거기 무슨 책이더노?"

"방안근이 '화심'이야가." 이렇게 1-4반창회는 모임을 더 할수록 추억이 하나하나 되살아나고 있다.



6명의 동열회 회원이 10월11일 설악산 등반을 마치고 낙산사 입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졸업45주년 '홈커밍'준비

제9회 기장 철마서 한우등심구이 야유회

제9회동기회는 10월25일 부산 기장군 철마에 있는 '산마루집'에서 가을야유회를 열었다.

김종호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부부동반 37명이 참석, 회포를 풀었다.

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이에 비해 모두들 너무 젊게 보인다"며 "마음을 비우고 부인 잘 위해 주면서 산다면 장수할 수 있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일행은 공기 맑고 물맛 좋은 야외에 나와 한우등심구이와 동동주로 배를 채우고, 족구 노래자랑 보물찾기 등으로 하루를 유쾌하게 보냈다.

한편 동기회는 지난 9월 5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산호정'(윤일명 동문 운영)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야유회 △사무실 수리 △졸업 45주년 행사 등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60대 중반 등열회원 설악 정복

조상배 회장 등 6명 노익장 과시

"우리는 아직도 40대 초반이다!" 등열회(제10회 산악회) 회원 6명이 '60대 중반'이라는 나이를 잊은 채 설악산 대청봉을 오른 후 사자후를 토했다.

지난 10월 12일 오전 7시, 등열회 조상배 회장은 김종원 김한조 이선형 정종만 허섭 동문에게 "대청봉으로!" 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6시 강원도 속초시 내물치에 내려 중도문에서 1박했다.

산행에 돌입한 일행은 비선대~천불동계곡~회운각~대청봉(1708m) 8.7km를 6시간30분만에 돌파했다.

이 때 체감온도는 영하3도. 10여분 숨을 고른 후 중정대피소로 급히 옮겨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다시 봉정암~수령동 대피소~백담사~용대리(인제군 북면)27km를 주파, 밤 9시에 하산했다.

조희장 등 6명은 이날 산길 35.

7km를 장장 14시간에 걸쳐 단풍구경 즐기면서 기쁘히 해내고 "아직은 40대야!"를 연발하며 시원한 동동주잔을 서로 나눴다.

제12회 지역·직능별 가을 모임

제12회동기회(회장 이용인)의 경문회와 경수회 등 직능회, 부산시대 4개 지역회의 10월 월례회가 다음과 같이 열렸다.

△남·수영·해운대·기장회(회장 조철원)=25일 대연동 '당백전(한식집)'

△사상·사하·강서회(회장 엄태섭)=24일 하단동 '바르미샤브집'

△경문회(회장 김용호)=23일 부평동 '다래한식집'

△중·서·영도회(회장 김준철)=20일 부평동 '화롯불'

△경수회(회장 송세문)=19일 거제도.

△동래·금정·북·양산회(회장 김부환)=17일 동래관광호텔 '내당'

단풍·대게 맛에 "부산 앞으로!"도 잊어 제16회 팔각산 산행



제16회동기회 일육산악회 올해 10월 정기산행이 10월 15일 경북 영덕 근교 팔각산(641m)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산행은 김인국회장 부부를 비롯해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태복산행대장의 리더로 팔각산~옥계 계곡~강구항~화석 박물관~삼상해상공원 코스에서 이뤄졌다.

팔각산이 단풍으로 볼타 일행은 탄성을 멈출 수 없었고 강구항의 대게맛에 '부산 앞으로!'가 무척 늦어졌다.

이윤택동문(25회)의 '오구' 정동극장 무대에 또 올라



이윤택동문(25·사진)이 작품을 쓰고 직접 연출을 맡아 통편을

날렸던 '오구'(강부자 주연)가 11월5일부터 서울 정동극장 무대에 다시 올라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소재를 한국적인 극의 제의형식으로 풀어내는 '오구'는 오는 30일까지 공연된다.

'오구'는 정동극장 상설 레퍼토리의 하나로 지난 89년 초연 이후 국내 연극작품으로는 유례없는 매년 무대에 올라 '장기전' 기록을 세우는 작품.

제27회 홈페이지 개설 '디지털동기회' 추진

10월 월례회 개최

제27회동기회가 '디지털동기회'로 거듭나기 위해 10월 4일 동기회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주소는 www 치지 않고 kng27.busan.co.kr다.

제27회동기회는 10월27일 오후 7시 부산진구 부전동 '등나무집'에서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두찬회장 주재로 10월 월례회를 열고 이같이 확인했다. 이날 모임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김중철동문과 엄궁동에서 산부인과를 끝 개업할 신재경동문 등이 모처럼 출석, 박수를 받았다.

제27회 홈페이지 구축은 문두찬회장의 '디지털 동기회'추진 의지에 따라 최경룡동문이 기획제작 운영을 맡고 있다.

주요메뉴는 △우리는 27회 △동기회 소식 △어디서 무엇을 △나도 한마디 △동기영입안내 △추억의 사진첩 △동기주소록 △이야기 코너 △연결사이트 등이다.

메뉴에서 4가지 조건(제목 내용 글꼴이 조회수)이 간단한 키워드(keyword)로서 모든 내용이 즉시 검색되고 처음 오는 동기들은 '동기주소록' 등록을 하면 된다.

10년맞이 120차 산행 이철산우회 새 회장 장기남

제27회동기회 이철산우회는 10월 8일 부산 기장근교 철마산(605m)에서 제120차 산행 겸 정기총회를 열고 장기남산행대장을 산우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회장을 비롯해 11명이 참석했다.

이철산우회는 지난 90년 11월 첫 산행을 시작한 이후 10년 동안 매달 한차례 산에 올라 이날 대망의 120차 산행을 맞았다. 특히 장회장은 100% 참석률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일행은 하산 후 뒤풀이에서 산우회 임원 공식직함을 정하고 용마이철산우회 재도약의 기쁨을 마련했다. 이날 장회장은 산행대장에 강태형, 총무에 강봉호동문을 임명했다.

제11회동기회 임원명단

고문	부회장	김달경	남호현	여운락	천금준	본부동창회	재경 제11회동기회
곽정출	양용석	김수곤	노영일	오길훈	최득호	부회장 김인호	회장 정중환
서근조	염한호	김용정	박성우	이상태	한영규	박희태	재경동창회
안강태	이명	김원형	박중술	이상철	현정춘	안강태	회장 김성규
오완수	최형욱	김인섭	반태주	이상훈		오완수	
유홍수	홍기환	김인식	매일규	이성태	감사	유홍수	
		김중하	신대수	이재진	최영수	이사 김병기	인천지역동창회
회장	이사	김재환	신유기	장영권		염한호	회장 최재용
김병기	김금찬	김학수	신윤업	정광용	총무이사	장대철	
	강수용	김형곤	심재룡	조양현	김동기	최형욱	
	강용대	김효민	안종인	지현호		사무국장 최득호	



단풍의 명산 설악
설악산 토왕굴.
깊은 골과 수려한 단풍이 잘 어우러져 있다.

‘산불’ 같은 南下단풍 ... 삶의 감동 분출시키고

경팔산우회는 올해 장거리 산행으로 설악산 대청봉을 택해 9월 20일 오전 일찍 서울을 떠났다. 김영철 회장의 지휘권(?)에 묶인 일행은 모두 11명으로, 중간 휴전에서 서영욱회원을 태우고 한계령 휴게소에 도착했다. 4개조별로 장비 및 행동식 등을 재점검 후 한계령의 설악루를 지나 끝정봉을 향해 일정한 속도와 보폭을 유지하면서 걸었다.

**경팔산우회 11명
설악 2박 3일 원정**

박성재의 산행체험기

절경을 마음껏 느꼈다. 오후 5시 이전에 중청 대피소에 도착하기 위해 산행속도를 조정하면서 설악의 나무와 바위가 이루어낸 한국의 산수를

감상하며 걷고 또 걸었다. 중청봉 휴게소(대피소)에 도착한 후 저녁식사 준비를 각 조별로 했다. 반주와 같이 식사를 한 후 설악의 석양을 즐기다가 잠에 빠졌다.

햇살을 눈부시게 받는다. 물소리 새 소리가 섞인 청량한 산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계곡과 절벽의 절경을 마주한다. 인생의 즐거움과 감동 속으로 흠뻑 빠지면서 또 걷고 걸었다. 이틀간의 설악등정을 마무리할 지점인 비선대에 도착, 강원도 명품인 목과 감자전을 곁들인 옥수수 동동주로 갈증을 풀고 속초로 향했다. 온천을 마친 후 양양의 송이버섯과 속초의 선도 좋은 생선회를 안주삼아 좋은 저녁 회식을 했다. 깊은 우정을 다시 다졌다.

재경회보 ‘龍馬’ 제27호 발간

재경동창회보 ‘龍馬’ 제27호(2000. 10)가 최근 발간됐다. 4×6매판 크기 잡지형인 이 회보는 이번 호에 △정기총회(2000. 10. 22 올림픽공원 3체육관) 개최 예고 △올해 2차 이사회(9. 28 대방동 삼보뷔페) △기별야구 자축연(9.22 롯데호텔



37층 가네트홀) △기별야구대회 8강전·준결승전·3~4위전·결승전 상보등을 상세히 게재했다. 또 △대전지역동창회 총회(6.15 유성 흥인호텔) △제26회 용마테니스대회(10.8 구파발 그린테니스장) △용마산악회 대청봉 산행기(정총·15회) △풍수지리소고(김준모·11회) △한강기맥 제2구간 산행후기 △분부동창회 2000년판 총명부 발간 및 32회 기별야구대회 개막 등을 비롯해 동기회 직능회별 소식 △회원동정 △재경동기회 총무 명단 등을 실었다.

부인석

김 동 순
(31회 김광순 동문 부인)



천성산 정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제31회동기회 동문·가족들.

10월 22일 화창한 아침, 생일날을 맞은 나는 남편을 따라 산에 갔다. 지하철 명륜역에서 여러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1차 팀으로 우대되어 동문이 제공한 25인승 봉고를 타고 천성산으로 향했다. 내원사 입구에서 다른 부인과 같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산행은 시작되었다.

매콤 적당한 곳에서 점심을 먹었다. 선배님, 우리팀, 라면 끊어 먹는 팀으로 나뉘어 맛있게 먹었다. 땀이 식으며 한기가 몰려왔다. 크고 멋진 남성용 잠바를 얻어 입고 또다시 정상으로 향했다. 815m의 정상에서 단체사진을 찍었다. 꼭 찍혀서 이 날을 기념해 보자는 눈망울들로 뭉친 우리들이었다. 눈 아래 끝없이 깔린 단풍의 산들을

은 잠깐 목을 축이고 하행길로 접어들었다. 제법 좋은 길이 이어지더니 좁은 길이 나왔다. 믿음직스

바뀌며 눈에 익숙한 내원사 주차장이 보였다. 주위는 어둠이 내리고 6시간여의 산행으로 땀에 젖은 우리는 청동오리를 먹고 ‘언론의 대부’ 최봉근 동문의 재담에 마음껏 웃으며 그 날의 일정을 마감했다.

산행으로 즐긴 생일선물

오랫동안 굶어볼 여유도 없이 다시 걷기 시작. 이제는 원효산의 정상에 펼쳐진 화엄봉을 향하여, 키만 큼 자란 억새와 철쭉들 사이로 좁다란 길이 계속 이어졌다. 한 줄의 긴 행렬이 땀을 치는 바람 속에서 여러 색의 억새밭을 묵묵히 걸었다.

러운 남기태 동문의 인도로 내려가는 길은 조금씩 가파르고 미끄러워졌다. 얼굴을 활짝는 가지에 염두를 둘 겨를 없이 앞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벌써 사람 모습은 간 곳 없고 우리는 계속 가지를 헤치고 내려갔다. 한참을 미끄러지며 내려온 길이 갑자기 편안한 길로

제26회동기회 직능별 모임

- △26악(회장 김태원)=7월 22일 금정산 야간산행. 매월 셋째주 일요일 정기산행.
- △26골(회장 최윤림)=7월 18일 동부산CC 7월 월례회. 매월 둘째 목요일 라운딩.
- △26기(회장 장중언)=8월12~13일 1박2일. 경주 하일라콘도에서 수련회.
- △26테(회장 김상현)=매월 1, 3주 토요일 대성구장에서 모임.
- △사이육=7월 18일 부산 명지동 금호회관에서 정기모임. 김상현동문 등 12명 참석. 2차 인비토에서 바베큐파티.

제27회 서·사하회 월례회

제27회동기회 서·사하회(회장 양태중)는 10월 6일 부산 하단 ‘일미릿집’에서 월례회를 열었다. 윤지한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13명의 동문이 참석, 심상한 활어회와 술잔을 돌리며 우정을 다졌다. 김경진 동기회 총무가 참석해 즐거움이 더했다.

Good morning

경고(慶高) 30회 졸업생들에게

서로 연락하면서 지냈으면 합니다. 아래의 E-mail에 동기들의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모두 정리하여 각 분들에게 다시 mail로 발송시켜 드리겠습니다.

tmbaek@eye-doc.co.kr

안전한 라식수술
동경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연구 발표

본원 백태민원장은 2000년 4월 일본의 안과 학회에서 안전한 라식수술관련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본 내용은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미국의 안과 학술지(논문으로)에 게재 될 예정입니다.

- 원장 백태민(경고 36회)
- 원장 박진용(경고 36회)

서면로터리 국민은행B/D 6층
수술문의전화 051)809-3131

울림20주년 HOME-COMING DAY
준비위원장 백태민

